

# 광주일보-시산맥 '제8회 동주문학상' 시상식 개최

### 해외 수상자 등 200여명 참석...본상 이은 시인 상금 1000만원 '언니, 우리 물류창고에서 만나요' 등 5편 영예...장학금 수여도

광주일보(회장 김여송)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김필영 시산맥 시회 회장, 시산맥회원, 문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민서 시인(시산맥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미국, 노르웨이 등에 거주하는 해외 수상자들이 모두 참석해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었다.

이경립 시인은 축하사에서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우리가 그의 시 정신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인 이은 시인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수상작은 '언니, 우리 물류창고에서 만나요' 등 5편.

이은 시인은 소감에서 "나의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언어는 나의 체험에서, 나의 내부에서 출현한 것들"이라며 "그것들이 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살아있는 감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2006년 '시와시학'에 '오로라 통신' 외 6편으로 등단한 이 시인은 시집 '불췌' 등을 펴냈다.

심사위원장인 장석주 시인은 "이 시인의 작품은 오늘날 노동과 자본, 기계와 인간 등을 둘러싼 문제

의식을 체험의 구체성과 집진한 묘사로 보여주고 있다"며 "21세기 노동의 현주소를 치열하게 증언하는 한 권의 시집을 만났다는 것은 반갑고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미국 유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작가상 수상자인 이월란 시인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 시인은 미주문인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시집 '모놀로그', '흔들리는 집' 등을 펴냈다. 2011년에는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해외작가특별상 수상자인 노세웅 시인에게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노 시인은 중앙시니어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워싱턴 '운동주문학'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해외신인상 수상자 코사박(본명 박상은) 시인에게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코사박 시인은 송의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현재 노르웨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동주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제2회 시산맥기후환경문학상 신인상 김성운, 김인식, 손준호 시인에 대한 시상도 배운주 시인 사회로 진행됐다. 최치원신인문학상 수상자인 김금비 시인에게 시산맥 등단패가 증정됐다.



제8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정영 시산맥 대표, 동주문학상 이은 시인, 해외신인상 코사박 시인, 해외작가상 이월란 시인, 특별상 노세웅 시인, 광주일보 박성천 문화부장, 심사위원장 장석주 시인.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김진미 학생에게 서시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시상식 중간에는 공연도 펼쳐졌다. 윤나람 소프

라노와 전승현 테너가 '축제의 노래' 등을 불러 분위기를 돋웠다.

한편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는 "운동주 시인의 유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함께

지켜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며 "동주문학상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 가치가 더욱 선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수진 작 '푸른 태양의 시간'



위주리 작 '비틀어질 틈바구니'

## 청년작가들의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

### 하정웅미술관 광주청년작가전... 내년 2월 11일까지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

'청년작가'라는 말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청년의 특권은 도전이며, 도전은 곧 다양성을 의미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변화의 동력은 청년에서 시작된다. 청년들의 거침없는 상상력과 경계를 넘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왔다.

청년작가 미술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서립미술관(관장 김준기) 청년작가 공모전인 하정웅미술관 광주청년작가전이 그것. 내년 2월 11일까지 열리는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은 부단히 고민하는 청년작가들의 예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전시다.

참여 작가로는 김수진, 남석우, 노은영, 박기태, 박아론, 위주리, 이세현, 이진상, 정덕용, 조유나 등 모두 10명이다.

전시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작품들을 주로 볼 수 있다. 다원적인 성격을

띠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반적인 추상미술 양식을 탈피해 새로운 경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

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은 세 가지 주제로 집약된다.

먼저 뉴미디어시대 이미지와 텍스트,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만난다. 남석우, 이진상, 조유나 작가는 가상이미지를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딱딱함이 아닌 재미를 선사한다. 가상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고 확장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 작품들은 실재와 가상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한다.

두 번째는 개념주의 전통을 따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청년작가들의 제기발랄한 상상은 뉴미디어 시대 감각으로 형상화됐다. 김수진, 노은영, 박기태, 박아론, 위주리 작가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김수진 작가는 '푸른 태양의 시간'을 통해 자연과 생명은 진실, 본성, 정서, 신뢰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함의한다는 것을 환기한다.

위주리 작가의 '비틀어질 틈바구니'는 마음에 새

겨진 충격적인 기억의 이미지를 조점화한다. 작가는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의 양자역학을 끌어들이며 마음과 몸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모색한다. 마음에 새겨진 기억은 소멸하지 않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위 작가는 '봉인해제:용해된 물결과 백화된 현실'을 주제로 한 전시를 27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 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타자를 모티브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환경을 비롯해 인권, 여성, 인종문제 등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이세현, 정덕용 작가는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병희 학예연구사는 "이번 청년작가전을 전시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체득한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사유와 작품 활동은 미래 예향 남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안토니 가우디, 신을 향한 미완의 꿈

### 광주예술의전당 28일 '올 댓 러브'...콘서트 가이드 김이곤

그 공연장에 가면 왠지 모를 웃음과 인문학 토크가 가득하다. 음악과 예술, 영상과 해설이 어우러져 클래식 입문자라도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선보이고 있는 '11시 음악 산책'의 일환으로 오전에 즐기는 마티네콘서트 '올 댓 러브'가 오는 28일(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여덟 번째 이야기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번 에피소드는 '안토니 가우디, 신을 향한 미완의 꿈'.

올 댓 러브는 올해 '사랑에 관한 여덟 가지 변주, 올 댓 러브(All That Love)'라는 주제로 연 초부터 진행, 전석 매진을 기록해 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에스파냐의 건축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구엘공원 등의 역작을 남긴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공연은 가우디의 출생, 성장기 중 기회, 건축 성향, 신을 향해 품었던 미완의 꿈 등을 돌아보는 데 계획이다. 그리고, 페르킨트 조각 중 '아침', 조제프 코스마의 '고양이'를 막을 연다. 이어 윌리엄 발페의 오페라 '보헤미안 소녀' 중 '난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를 들을 수 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헨델 오페라 '세르세' 중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비로프의 '아베 마리아'도 울려 퍼진다. 대미는 바흐 칸타타 14번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장식한다.

해설은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용인문화재단 등에서 콘서트 가이드를 맡아온 김이곤(사진)이 맡는다. 전지역 기엘렉톤-피아노 연주는 중앙대 음대를 졸업한 백순제가 맡으며 소프라노 박미화, 카운터테너 이희상, 바리톤 최은석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광주예술의전당 모성일 홍보마케팅장은 "김이곤 콘서트 가이드의 재치 있는 입담과 깊이 있는 해설이 곁들여지는 마티네 콘서트"라며 "인문학과 클래식을 접목한 흥미로운 시간에 관객들이 푹 빠져 재밌게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 초등생 엄지,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다

### 영광 출신 이성자 장편동화 '최엄지, 손엄지' 펴내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던 엄지는 안타깝게도 엄마와 아빠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다. 또한 엄마의 재혼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 씨에서 손 씨로 성도 바뀐다.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의 장편동화 '최엄지, 손엄지' (책그레)는 초등생 엄지가 가정의 불행을 딛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장 동화다. 작품은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로 선정된 바 있다.

시대가 변했고 이혼이 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큰 사건이자 상처가 된다. 자칫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작품에서 엄지는 엄마와 아빠 이혼으로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에 휩싸인다. 엄마를 생각하며 감정을 누르지만, 분노는 이모를 향해 투사된다. 이모의 소개로 새아버지가 된 아저씨도 미울 수밖에 없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은 좌충우돌의 연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엄지는 조금씩 당당해지며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특히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치원 친구 현수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작가는 통화에서 "이번 동화는 어른의 입장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



어다보는 데 초점을 뒀다"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이가 겪는 정체성 혼란과 존재감,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질차 등을 세심하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고 배우며 살 수 있다"며 "부모님은 물론 이웃과 친구들, 동물들, 한 포기의 풀까지도 다 감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자 동화작가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우리나라 좋은동시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너도 알 거야', 동화집 '행'이라고 부를 자신 있니?' 등 다수의 창작집을 펴냈다. 현재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와 신인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일본 무대

### 내달 1~3일 가고시마현... 태평무·부채춤·흥보가 등 공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에서 2박 3일 동안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 30분 히오키시 이주인문화회관에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 공연'을 선보인다.

한·일 수교 58주년을 맞아 예향 광주의 예술적 성취를 공유하며, 국악제 수상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무대다. 임방울국악진흥회가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는 수상자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히오키 시장,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 등 관계자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전통 국악의 향연을 즐길 예정이다.

지나해 임방울국악제 농악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동두천이담농악단(최영호 외 5명)이 '뽕물 판굿'을 들려준다. 이어 제28회 대통령상 수상자 서정금 명창이 심청가 중 절정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소희 외 6명은 '부채

춤'을, 제17회 문체부장관상 수상자 김연우 명창은 '심청가 중 방아타령 대목 가야금병창', 기악부 국무총리상 수상자 김승호, 조성재, 조가완 명인이 '기악산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 제31회 대통령상 수상자 박자희 명창이 무대에 올라 흥보가 중 '흥보 부자되어 첫째 박 타는 대목'으로 우리 민영을 더한다. 이와 '심수관 찬가'는 제13회 대통령상 수상자 김찬미 명창이 부르며 '아리랑 연곡'을 국서경 외 6명 무용수와 김연우 명창 등이 부른다. 대미는 한국의 농악놀이에서 파생된 소고춤이 장식할 예정이다.

임방울국악단 관계자는 "태평무, 부채춤 등 흥보가, 심청가 같은 익숙한 판소리까지 감상할 수 있는 해외공연"이라며 "수상자들의 사기 진작과 예향 광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